

## 예레미야애가 번역 연습

박동현\*

대한성서공회에서 2003년, 2005년,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마련한 성서 번역 워크숍에서 나라 안팎의 전문가들이 여러 관점에서 성서 번역 이론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sup>1)</sup>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서를 한글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직역이나 의역<sup>2)</sup> 가운데서도 서로 조금씩 다른 여러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이런 여러 경향을 두고 성서 번역 이론에서는 형식의 동등성, 형식의 일치와 내용의 동등성, 기능의 동등성, 스코포스 개념에 따른 번역 등의 용어를 씁니다.<sup>3)</sup> 또한 성서 각 본문의 성격에 따라 번역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구약 시문의 경우에는 평행법을 비롯하여 히브리 시문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표현 형식을 한글 번역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sup>4)</sup>

그런데 특정 분야의 기술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춰 적은 수의 사람들이 간략하게 또 집중해서 공부하는 과정이 워크숍(workshop)인 만큼<sup>5)</sup> 성서번역 워크숍에서도 이미 배웠거나 나와 있는 이론을 염두에 두고 성서 본문을 참여자들이 직접 번역해 보고 그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나 발견한 점들을 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예레미야애가<sup>6)</sup>에서 1장 1절과 3장 58-59절을 뽑아 함께 번역하는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 1) 그 여러 모임에서 발표된 중요 논문들은 「성경원문연구」 12호(2003. 2), 15호(2004. 10), 16호(2005. 4), 20호(2007. 4), 20호 별책에 실려 있습니다.
- 2)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서울: 두란노, 1996), 153-174(153-166: “성서 번역에 있어서 직역과 의역”, 167-174: “『개역』의 직역과 의역”)를 참고하십시오.
- 3)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175-208, 특히 176-181, 197-208; 조지윤, “성서 번역자 양성 과정을 위한 제언 -스코포스 이론과 번역의 실재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2호(2003. 2), 121-140, 특히 124-127.
- 4) 문익환,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성서 번역의 문제들-”, 그리스도와겨레문화연구원 편, 『한글 성서와 겨레문화』(서울: 기독교문사, 1985), 49-65; 김정우, “히브리 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 이론과 실제 -시편 49편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2호(2003. 2), 7-37; 김정우, “히브리 고시(古詩) 번역의 문제들 -‘모세의 노래’(신 32:1-43)를 중심으로(제1부)-”, 「성경원문연구」 19호(2006. 10), 7-33; 김정우,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제2부: 실례들-”, 「성경원문연구」 20호(2007. 4), 7-29를 참고하십시오.
- 5) 여러 영영사전에서 workshop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연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2장 1절과 4장 1-2절은 1장 1절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연습 0]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각자 이 여섯 구절을 BHS와 BHQ에서 옮겨 적어 놓은 레닌그라드 사본을 대본으로 하여 미리 우리말로 옮겨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으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의 경우에 마소라 본문을 고칠 만한 본문비평에 따른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한글 번역도 마소라 본문을 대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소라 본문을 BHS 예레미야애가의 편집자인 로빈슨(T. H. Robinson)은 다음과 같이 줄을 바꾸어 적어 놓았습니다.<sup>7)</sup> 2장 1절과 4장 1절에서도 로빈슨은 אִיכָה를 그 뒤 낱말들과 구별하여 홀로 한 줄을 이루게 해 놓았습니다.

אִיכָה  
וְשָׁבָה בְּדָד הָעִיר רַבָּתִי עִם  
הַיְתָה כְּאַלְמָנָה רַבָּתִי בְּגוֹיִם  
שָׂרְתִי בְּמִדְיָנוֹת הַיְתָה לְמַסֵּ: 8

이와는 달리 BHQ 예레미야애가의 편집자인 셰퍼(R. Schäfer)는 אִיכָה를 그 다음 다섯 낱말과 한데 붙여 써서 1절의 첫 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sup>8)</sup> 2장 1절과 4장 1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אִיכָה וְשָׁבָה בְּדָד הָעִיר רַבָּתִי עִם  
הַיְתָה כְּאַלְמָנָה רַבָּתִי בְּגוֹיִם  
שָׂרְתִי בְּמִדְיָנוֹת הַיְתָה לְמַסֵּ: 8

[연습 1] 이리하여 예레미야애가 번역에서 처음 부딪치는 문제는 책의 첫 낱

6)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예레미야애가’라는 이름은 이 책의 칠십인역 1장 1절에 덧붙여 있는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 진 뒤에 예레미야가 앉아 울며 예루살렘을 두고 애가를 불러 말하기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서를 따른다면 그냥 ‘애가’라고 하는 것이 좋겠지만, 교회의 오랜 전통을 존중하여 이 글에서도 ‘예레미야애가’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7) T. H. Robinson (ed.),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3. Megilloth*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sup>4</sup>1990[<sup>1</sup>1975]), 1354-1367, 여기서 1354.

8) R. Schäfer (ed.), *Biblia Hebraica Quinta 18. Megilloth*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4), 54-72, 여기서 52.

말 אֵיכָה를 따로 떼 내어 볼 것이냐, 아니면 뒤이어 나오는 다섯 낱말과 한데 묶어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אֵיכָה를 ‘슬프다’(『개역』) 또는 ‘아’(『공동』, 『성경』, 9) TNK<sup>10</sup>, ZB<sup>11</sup>) 등)로 옮긴 번역본들은 앞의 경우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하여’나 ‘어찌’로 옮긴 번역본들(『칠십인역』, 『불가타』, NIV, NRSV, LUT<sup>12</sup>) 등은 뒷 경우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둘을 함께 쓰는 번역본들도 있습니다(『개역』, 『표준』, 『부버역』<sup>13</sup>) 등)<sup>14</sup>). 이 낱말이 본디 의문사였다는 점을 살리려면 둘째 경우가 좋습니다. 이는 7절을 빼고는 1장의 각 절이 석 줄로 되어 있는 점과도 잘 들어맞습니다.

[연습 2] 그렇게 볼 경우에 1절은 BHQ에서 해 놓았듯이 세 줄로 이루어지고, 각 줄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둘로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번역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첫 줄 앞부분과 뒷부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세퍼는 첫 줄을 כָּדָר יִשָּׁבָה וְאֵיכָה וְעַם רַבְתִּי רָבָעִיר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읽게 해 놓았습니다. 이 두 부분은 각각 세 낱말로 이루어진 구(句, colon)입니다. 이처럼 1절 첫 줄은 두 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1절 첫 줄의 첫 구와 둘째 구라고 부르기로 합니다.<sup>15</sup>)

1절 첫 줄의 첫 구인 כָּדָר יִשָּׁבָה וְאֵיכָה는 동사 문장 형식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여]는 홀로 앉았는가?”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실제로는 격한 감정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어인 삼인칭 단수 여성이 누구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데 있습

9) 주교회의의 성서위원회 편찬, 『성경』(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10) Tanakh. The Holy Scripture. New Jewish Publication Society Translation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Hebrew Text (Philadelphia/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5).

11) Die Heilige Schrift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Zürich: Verlag der Zürcher Bibel. 1955)(1907-1931 개정판). 독일어 번역 성경 가운데서는 루터 성경보다 오히려 이 취리히 성경이 여러 점에서 더 낫다는 평이 나 있습니다.

12) Die Bibel nach der Übersetzung Martin Luthers mit Apokryphen. Bibeltext in der revidierten Fassung von 1984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5).

13) Die Schriftwerke verdeutscht von Martin Buber. Band 4. Das Buch der Preisungen (Heidelberg: Verlag Lambert Schneider, 1980)(=1962).

14) 서양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방대한 분량으로 나온 예레미야애가 주석서인 U. Berger, Klagelieder.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Freiburg/Basel/Wien: Herder, 2002), 84(“Ach, wie ...”)에서도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15) 서양어 문헌에서는 보통 이 두 구를 각각 1aα와 1aβ로 줄여 표시합니다. 아라비아 숫자와 우리 말 기호로 줄여 쓴다면 1ㄱ①과 1ㄱ②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니다.

둘째 구인  $\text{עַם רַבְּתַי הָעִיר}$ 의 성격을 알려면 우선 둘째 낱말  $\text{רַבְּתַי}$ 이 어떤 풀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낱말의 어미  $\text{י}$ 를 보통은 여성 단수 연계형을 강조하기 위해 생긴 옛 어미로 추측합니다.<sup>16)</sup> 그렇다면 1절 첫 줄의 뒷부분은 앞의 구와는 달리 문장이 아니라 명사 둘과 형용사 하나로 이루어져서 앞 동사 문장의 주어를 설명합니다.

**[연습 3]** 1절 첫 줄 둘째 구의  $\text{עַם}$ 과  $\text{רַבְּתַי}$ 를 어떻게 이해하고 둘째 구를 어떻게 옮겨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히브리 낱말  $\text{עַם}$ 은 군이 백성을 뜻한다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text{עַם}$ 을 꾸미는 형용사  $\text{רַב}$ 가 덧붙으면 이는 그저 술한 사람, 많은 사람을 뜻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sup>17)</sup>과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런 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text{עִיר}$ 의 번역어로 한자말 ‘성읍’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말을 살려 쓴다면 ‘고을’이 더 낫습니다.

이리하여 둘째 구  $\text{עַם רַבְּתַי הָעִיר}$  자체는 ‘사람 많은 고을’로 직역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많다 함은 현재 상황을 표현하는 첫 구의 ‘홀로’( $\text{בְּרַד}$ )와 대조되는 지난날의 상황을 가리키므로 ‘사람 많던 성읍’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생각한다면 내용의 동등성을 추구하는 의역이 더 낫겠지만, 그리하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직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히브리어 본문의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으면서도 한글 문장으로도 그리 어색하지 않도록 번역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1절 첫 줄 번역에서 또 하나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술어동사  $\text{שָׁבַח}$ 의 완료 시제를 어떻게 이해하여 어떻게 옮길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동사  $\text{שָׁבַח}$ 나 이와 비슷한 뜻의 동사가 구약 성경에서 부사  $\text{בְּרַב}$ 와 함께 쓰일 때 지니는 뜻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연습 4]** 1절 첫 줄 첫 구의  $\text{שָׁבַח}$ 를 어떤 시제로 어떤 뜻으로 옮기면 좋겠습니까?

16) Wilhelm Gesenius' *Hebräische Grammatik* völlig umgearbeitet von E. Kautzsch (Hildesheim/Zürich/New York: Georg Olms Verlag, 1983)(이는 1909년 Leipzig에서 나온 28판을 네 번째로 다시 찍은 것입니다) §90 l(엘)을 보십시오. 아래에서는 GK로 줄여쓰기로 합니다. 이 책의 한글 번역본으로는 E.Kautzsch 증편, 신윤수 옮김,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 2003)이 있습니다.

17) L. Koehler and W. Baumgartner (ed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Leiden/New York/Köln: E.J.Brill, 1995), 793. 이 사전을 아래에서는 HAL로 줄여서 표시하기로 합니다.

니까? חָפַץ가 גָּדַד와 함께 나오는 여러 구절(애 3:28; 레 13:46; 렘 15:17; 49:31)과 חָפַץ와 비슷한 뜻을 지니는 חָפַץ가 גָּדַד와 함께 나오는 구절(민 23:9; 신 33:28; 미 7:14)과 애가 1장 1절을 견주어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앓다’(גָּדַד חָפַץ)가 예레미야애가 3장 28절에서는 야훼께서 지우신 멍에를 지는 사람이 지녀야 할 몸가짐을, 레위기 13장 46절에서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격리된 상황을, 예레미야 15장 17절에서는 예언자가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한 독립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는 예레미야 49장 31절에서도 바로 붙어 쓰이지는 않으나 ‘앓다’(חָפַץ)와 ‘홀로’(גָּדַד)가 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비슷한 흐름에서 גָּדַד가 민수기 23장 9절과 신명기 33장 28절과 미가 7장 14절에서는 동사 חָפַץ(‘거주하다’)과 함께 쓰입니다.

이리하여 애가 1장 1절 첫 줄에서 חָפַץ를 뺀 나머지 낱말만 두고 생각하면 주민이 많은 한 고을이 제 혼자 힘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독립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뜻하는 문장으로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 חָפַץ가 있음으로써 גָּדַד가 현재의 고립된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절 첫 줄 둘째 구에서 묘사하던 지난날의 상황 곧 ‘사람 많던’ 상황과 대조되어 ‘홀로’ 있게 된 상황을 표현하는 낱말이 됩니다.

이처럼 ‘홀로 앓다’라는 말에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영광에 대한 기억도 암시되어 있습니다.<sup>18)</sup>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동사 חָפַץ를 ‘앓다’로 번역하지 않고, ‘살다’, ‘거주하다’로 번역하면 어떨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한 여성 인격체로 다루어지는 이 고을이 울고 있다고 하는 2절을 염두에 두면 홀로 남아 앓아서 우는 여성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그저 ‘앓다’로 옮기는 것이 알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습 5]** 1절 첫 줄 전체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첫 줄을 한글로 옮길 때 어떤 한계에 부딪칩니까? 애가 1장은 각 절의 첫 낱말이 히브리 자모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알파벳 시입니다. 이 점을 1절 한글 번역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18) P. J. Owens, *Suffering from Aleph to Taw: The Imagery of Suffering in the Book of Lamentations* [Ann Arbor: UMI, 1998. (Ph.D.):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7], 171-172와 견주어 보십시오.

이제 두 개의 구로 이루어진 1장 1절 첫 줄을 그 히브리어 본문의 짜임새를 따라 구(句) 구조를 살려 옮긴다면,<sup>19)</sup> “어찌하여 그[여]가 홀로 앉았는가, 사람 많던 고을이!”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문장이 한글로는 어색합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어 본문의 짜임새를 무시하고 “어찌하여 사람 많던 고을이 홀로 앉았는가!”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하더라도 어색한 점이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술어 동사 ‘앉다’의 주어가 인격체가 아닌 ‘고을’이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히브리어 본문에서 주어 ‘고을’이 한 여성 단수 인격체로 나온다는 점을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는 지난날 많은 사람의 마음을 끌고 관심의 대상이 된 한 여성이 이제는 아무도 찾는 이 없이 외롭게 홀로 앉아 있는 모습에 빗대어 지난날 사람들로 북적이던 고을이 이제는 찾는 이 없이 버려진 고을처럼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문에서도 더러 비인격체를 인격체로 여기면서 문장의 주어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어색함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알파벳 시인 애가 1장은 1절의 경우에는 그 첫 낱말이 히브리 자모의 첫자인 **א**로 시작합니다. 다행스럽게도 **א**의 음가에 가장 비슷한 한글 자모가 ‘ㅇ’이므로 ‘어찌하여’도 그런대로 괜찮은 번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습 6]** 1절 둘째 줄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히브리어 본문에서 둘째 줄은 첫 줄과 어떻게 이어지며 어떤 점에서 첫 줄과 비슷하고 다른니까? 한글로 옮길 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절 둘째 줄의 첫 구와 둘째 구는 각각 두 낱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구인 **הִיאָ הָיְתָה כְּאַלְמָנָה** 자체는 “그[여]가 홀어미처럼 되었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를 첫 줄과 관련시켜 읽으면, 주어인 여성 ‘그’는 첫 줄 둘째 구에서 말한 ‘사람 많던 고을’입니다.

그런데 둘째 줄 둘째 구인 **בְּרִבְתֵּי בְנוֹיָם**는 첫 줄의 둘째 구처럼 첫 구의 주어인 여성 ‘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용사 **בְּ**가 꾸미는 명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형용사가 명사 **אַלְמָנָה**를 꾸미지 않는다는 점은 명사에 붙은 분리 액센트가 똑똑히 알려줍니다. 이리하여 첫 줄 둘째 구와는 달리 **בְּ**가 명사처럼 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낱말 **בְנוֹיָם** 때문에 **בְּ**가

19) 구 구조를 살리는 번역은 보통 학문적인 논의에 흔히 쓰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시의 분위기와 느낌을 전하려고 할 때도 약간의 해설을 덧붙인다면 쓸 수 있습니다.

뜻하는 바도 첫 줄의 둘째 구와는 ‘많음’이 아니라 ‘큼’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뜻을 지니는 한 히브리어 낱말이 나란히 나올 때 그 관련성을 한글 번역에서 드러내기 힘들다는 문제에 부딪칩니다.

아무튼 1절 둘째 줄을 히브리어 본문의 짜임새에 맞추어 번역하면 “그[여]가 흠어미처럼 되었고, 민족들 가운데 크던 이가!”가 됩니다. 이 또한 우리 말투에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히브리어 시문의 구(句) 경계를 무시하고 “민족들 가운데 크던 이가 흠어미처럼 되었고!”로 옮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1절 첫 낱말 אֵיכָה가 둘째 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어찌하여) 민족들 가운데 크던 이가 흠어미처럼 되었는가!”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연습 7] 1절 셋째 줄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히브리어 본문에서 셋째 줄이 첫 두 줄과 비슷하거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1절의 셋째 줄은 첫 두 줄과는 좀 다른 짜임새를 보입니다. 지난날의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 첫 구인 בְּמִדְיָנוֹתַי בְּשָׂרָהּ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술어로 둘째 구인 לָמַסְ לְהָיְתָ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째 구 동사 문장의 주어인 단수 여성 인격체가 누구인지를 첫 구에서 ‘지역들 가운데서 공주이던 이’라는 말로 미리 밝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여]가 강제노동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1절 첫 낱말 אֵיכָה가 셋째 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셋째 줄은 “(어찌하여) 지역들 가운데서 공주이던 이가 강제노동 하는 존재로 되었는가?” 정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히브리어 본문의 첫 구와 둘째 구의 구별이 번역에서도 살아납니다.

[연습 8] 1절 석 줄 여섯 구 전체를 구를 단위로 줄을 바꾸어 한글로 옮겨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1절 전체를 BHQ의 줄 바꾸기를 따라 석 줄로 나누고, 첫 낱말 אֵיכָה가 그 석 줄에 다 영향을 끼친다고 볼 경우에 1절은 대강 다음과 같이 옮길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 많던 고을이  
 홀로 앉아 있는가!  
 민족들 가운데 크던 이가  
 흠어미처럼 되었는가!  
 지역들 가운데 공주이던 이가

강제노동 하는 존재로 되었는가!

이를 히브리어 본문과 견주어 보면, 셋째 줄에서는 첫 구와 둘째 구가 히브리어 본문의 순서대로 되었으나, 둘째 줄에서는 두 구의 순서가 바뀌었으며, 첫 줄에서는 첫 구의 첫 낱말이 둘째 구와 한데 어우러져 번역에서는 첫 구가 되고 히브리어 본문의 첫 구의 둘째 셋째 낱말만으로 한글 번역에서는 둘째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시문을 그 줄과 구에 맞추어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 실제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습 9]** 한글 공인번역본(『개역』, 『개역개정』, 『공동』, 『공동개정』, 『표준』, 『표준개정』, 『성경』)의 1절 번역은 각각 어떤 특징을 띠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 한글 공인번역본의 1절 번역을 『개역』과 『개역개정』, 『공동』과 『공동개정』, 『표준』과 『표준개정』의 순서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위의 사역과 견주어보기 위해 각 공인번역본의 번역 경향을 따라 1절을 세 줄이나 네 줄, 여섯 구나 일곱 구로 나누어 적어보겠습니다.

맨 먼저 『개역』과 『개역개정』의 번역을 보십시오.

『개역』: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개역개정』: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개역』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의 첫 낱말 **אֲיִכָּה**를 ‘슬프다’는 말로 옮기면서 히브리어 본문 1절 첫 줄 둘째 구의 첫 낱말인 **עָרִירָה**를 바로 그 뒤로 붙여 호격(呼格)으로 옮겼습니다. 그리하면서도 첫 줄 뒷부분에 ‘어찌’를 다시 넣었습니다. 이 점에서 『개역』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의 형식을 어느 정도 바꾸어 자유롭게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한 다음에 히브리어 본문에는 **אֵץ**와 **עָרִירָה** 같은 부사가 없는 데도 문장의 뜻을 잘 살려내기 위해서 “전에는 … 이제는 …”이라는 대조 형식으로 세 문장을 번역했습니다. 또 첫 줄 첫 구의 **רָדָה**를 ‘적막히’나 ‘적막하게’로 풀어 옮겼습니다.

『공동』과 『공동개정』의 애가 1장 1절 번역은 마찬가지로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아, 그렇듯 봄비던 도성이  
이렇게 쓸쓸해지다니.  
예전에는 천하를 시녀처럼 거느리더니,  
이제는 과부 신세가 되었구나.  
열방이 여왕처럼 우러르더니  
이제는 계집종 신세가 되었구나.

내용의 동등성을 추구하는 공동번역에서는 **אֲיִכָּה**를 ‘아’로 옮긴 뒤에 첫 줄에서는 지난날과 오늘의 상황을 아무런 부사를 쓰지 않고 그냥 ‘봄비던’과 ‘이렇게 … 해지다니’라는 식으로 표현했다가, 둘째 줄에서는 『개역』과 비슷하게 “예전에는 … 이제는…”의 대조문으로 옮기고, 셋째 줄에서는 ‘예전에는’은 쓰지 않으나 ‘우러르더니’로 지난날 상황을 묘사하고 ‘이제는’을 덧붙여 그에 대조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것은 히브리 낱말 하나하나의 뜻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옮긴 점입니다. 또 둘째 셋째 줄의 둘째 구는 ‘…신세가 되다’로 옮겨 히브리어 본문의 술어동사에 잘 맞추었습니다.

『표준』과 『표준개정』의 번역은 마찬가지로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봄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못 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표준』에서는 『개역』과 『공동』을 합해 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첫머리에서 『공동』의 ‘아’와 『개역』의 ‘슬프다’를 합하여 ‘아, 슬프다’라고 한 데서부터 드러납니다. 뒤이어 “예전에는 … 이제는…”의 대조 형식을 『개역』처럼 세 줄에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 각 줄의 첫 구는 ‘…더니’로 끝나게 옮겼습니다.

가톨릭 새번역 『성경』의 애가 1장 1절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사람들로 붐비던 도성이  
외로이 앉아 있다.  
못 나라 가운데에서 뛰어나던 도성이  
과부처럼 되고 말았구나.  
모든 지방의 여왕이  
부역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구나.

첫 낱말 אֵיכָה를 ‘아’로 옮긴 점은 『공동』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예)전에는’과 ‘이제는’을 쓰지 않고서도 지난날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대조된다는 점을 그런 대로 드러냈습니다. 다만 둘째 줄에서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도성’을 넣어 둘째 줄 문장의 주어와 첫 줄 문장의 주어와 같다는 점을 똑똑히 한 점이 눈에 띕니다.

[연습 10] 1장 1절처럼 אֵיכָה로 시작하는 2장 1절과 4장 1절과 4장 2절도 번역해 보십시오.

2장 1절도 1장 1절과 마찬가지로 본문비평을 해도 마소라 본문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BHQ에서 2장 1절 마소라 본문을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אֵיכָה יְעִיב בְּאָפוּ אֲדַנִּי אֶת־בְּתֻצִיֹן  
הַשְּׁלִיף מִשָּׁמַיִם אֶרֶץ תְּפֹאֶרֶת יִשְׂרָאֵל  
וְלֹאֲזַכֵּר הַדְּמִתְּנָלָיו בְּיוֹם אָפוּ: ס

여기에서도 אֵיכָה가 1절을 이루는 세 문장 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

고 히브리어 본문의 구(句) 구조를 살려 옮겨보십시오.

어찌하여 그가 그의 분노 가운데 구름으로 덮으시는가,  
 주께서 딸 시온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이스라엘의 자랑거리를!  
 또 그의 양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는가,  
 그의 분노의 날에!

이를 히브리어 본문의 구 구조를 무시하고 우리 말투에 맞추어 새롭게 구를 짜서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딸 시온을  
 그의 분노 가운데 구름으로 덮으시는가!  
 이스라엘의 자랑거리를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또 그의 분노의 날에  
 그의 양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는가!

이런 경우에 한글 번역에서는 대체로 히브리어 본문 2장 1절 각 줄의 둘째 구가 첫 구보다 먼저 오게 됩니다.

4장 1-2절의 경우에도 본문비평으로 마소라 본문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BHQ에서 4장 1-2절 마소라 본문을 아래에 옮겨 적습니다.

1 אֵיכָה יוּעַם זָהָב וְשֵׁנָא הִכְתָּם הַטּוֹב  
 חֲשַׁתְּפִכְנָה אֲבֵנֵי־קֹדֶשׁ בְּרֹאשׁ כָּל־חֻצוֹת:  
 2 בְּנֵי צִיּוֹן הִיקָרִים הַמְּסֻלָּאִים בְּפֹ  
 אֵיכָה נִחְשְׁבוּ לְנִבְלֵי־חֶרֶשׁ מַעֲשֵׂה יְדֵי יוֹצֵר:  
 ○ ○

4장 1절의 경우에는 **אֵיכָה**는 1절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2절 둘째 줄의 **אֵיכָה**는 글의 흐름으로 보아 첫 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그 히브리어 본문의 구 구조를 살려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sup>1</sup>어찌하여 금이 어두워졌는가!  
 좋은 금이 변했는가!

거룩한 돌들이 엮질러져 있는가,  
 거리 어귀마다!  
<sup>2</sup>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을  
 순금으로 값을 치를 만큼  
 어찌하여 질항아리처럼 썸했는가,  
 옹기장이의 손으로 만든 것!

2절의 경우에 **הָאֲבָנִים**가 둘째 줄 첫머리에 나오는 것은 알파벳 시의 특성 때문에 2절 첫 낱말을 히브리어의 둘째 자모 **ג**로 시작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번역에서도 살리려고 ‘**ב**’으로 시작하는 낱말을 2절 맨 처음에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글에서 바른 문장이 되려면 어구의 경계를 뛰어 넘어 말의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2절이 그러합니다. 그리하여 2절의 첫 낱말도 ‘**ב**’으로 시작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sup>1</sup>어찌하여 금이 어두워졌는가!  
 좋은 금이 변했는가!  
 거리 어귀마다  
 거룩한 돌들이 엮질러져 있는가!  
<sup>2</sup>순금으로 값을 치를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을  
 어찌하여 옹기장이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처럼 썸했는가!

이처럼 예레미야애가 번역은 그 첫 절부터 히브리어 본문 번역의 여러 가지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 줍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애가 가운데 장인 3장에서 두 절을 골라 번역의 한계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3장 58-59절이 그 본문입니다. 먼저 레닌그라드 사본의 마소라 본문을 *BHS*를 따라 옮겨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רַבַּת אֲדָנִי רִיבִי נִפְשִׁי נֶאֱלַתְּ חַיִּי: 58  
 רֵאִיתָהּ יְהוָה עֲתַתִּי שָׁפַטָהּ מִשְׁפָּטָי: 59

*BHQ*에서는 3장이 석 줄을 한 단위로 하여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이루어진

점을 살리려고 히브리 알파벳의 18번째 자모인 <레쉬>(ר)로 시작하는 석 줄이 58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58절을 59-60절보다 조금 내어 쓰고 각 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절의 경계를 넘어서서도 잘 드러나도록 좀 더 보기 좋게 적어 놓았을 따름입니다.

:נְאֻלֶּת חַיִּי רַבַּת אֲרֻנִי רִיבֵי נַפְשִׁי 58  
שָׁפַט מִשְׁפָּטֵי רַיָּב רַיָּב עֲנֹתַי שָׁפַט מִשְׁפָּטֵי 59

이 두 절의 경우에도 마소라 본문을 고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한글 번역도 마소라 본문을 대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치는 문제는 58절 앞부분과 59절 뒷부분에 동사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명사를 목적어<sup>20)</sup>로 삼고 있는 점을 번역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רִיב רַיָּב와 שָׁפַט מִשְׁפָּט이 그들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표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두 절을 번역하는 데 생각해야 할 다른 문제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습 11]** 3장 58절 전반절에 나오는 רִיב רַיָּב를 잠언 25장 9절, 사무엘상 24장 16[15]절, 시편 43편 1절, 잠언 22장 23절, 23장 11절, 예레미야 50장 34절, 시편 119편 154절에 나오는 רִיב רַיָּב와 견주어 보면서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רִיב רַיָּב 자체는 ‘다툼을 다투다’로 직역할 만한데, 이 경우에 목적어인 명사 ‘다툼’(רִיב)이 실제로는 둘 사이에 다툼 거리나 다툼 일 곧 분쟁의 대상을 가리키므로, ‘다툼 거리를 두고 다투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9절이 그런 보기입니다.

רִיבֶךָ רִיב אֶת־רֵעֶךָ וְסֹד אַחַר אֵלֶיךָ:

이 구절은 “네 다툼 거리를 두고 네 이웃과 다투더라도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는 말라!”는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툼 거리가 있는 주체와 그것을 두고 다투는 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한 사람의 다툼에 그를 도우려고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투는 일을 하

20) 이런 목적어는 자동사에 붙은 목적어로 동족(同族) 목적어, 내부 목적어, 절대 목적어라고도 부르고 라틴말로는 schema etymologicum(‘어원에 맞춘 표현형식’)이나 figura etymologicum(‘어원에 맞춘 수사표현법’)이라고도 합니다. GK, §117p를 보십시오.

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다툰다는 것을 **רִיב רַב**로 표현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15]<sup>21)</sup>절에서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 가운데 야훼, “그가 나의 다툼을 다투어주시기 바란다!”(**רַב אֶת־רִיבִי**)고 합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맞서 “내 다툼을 다투어 주십시오!”(**רִיבָה רִיבִי**)라고 간청합니다. 잠언 22장 23절에서는 억눌리는 약한 자와 가난한 자, “그들의 다툼을 야훼께서 다투신다.”(**יְהוָה יִרִיב רִיבָם**)고 합니다. 잠언 23장 11절에서는 야훼께서 고아들, “그들의 다툼을 다투어”(**אֶת־רִיבָם**) 그들의 재산을 노리는 자들과 맞서신다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 50장 34절에서는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 “그들의 다툼을 다투신다.”(**רִיב אֶת־רִיבָם**)고 하고, 51장 36절에서는 야훼께서 예루살렘, “너의 다툼을 내가 다투겠다.”(**הֲנִירִב אֶת־רִיבְךָ**)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7장 9절에서도 야훼, “그가 내 다툼을 다투시리라.”(**יִרִיב רִיבִי**)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애가 5장 58절에 가장 가까운 것은 시편 119편 154절 전반절에서 시인이 야훼께 “내 다툼을 다투어 나를 구해내 주십시오!”(**רִיבִי וְהַצֵּלֵנִי**)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예레미야애가 3장 58절과 마찬가지로 **רִיב רַב**에 뒤이어 동사 **נָאַל**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적어 **רִיב**에 붙은 인칭대명 접미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점과 동사 **נָאַל**의 목적어가 ‘나’(נִי)가 아니라 ‘내 생명’(חַיִּי)인 점이 시편 119편 154절과 다를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툼 일을 다투신다 함은 결국 하나님이 내가 힘이 모자라 다툼에서 밀리고 있을 때 그 일을 나 대신 맡아 이기게 해 주심을 뜻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번역에서 이렇게 길게 쓸 수는 없으므로 그저 “하나님이 내 사건을 맡으셨다.”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연습 12]** 3장 58절 전반절을 여러 한글 공인 번역본에서 어떻게 옮겨놓았는지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알아보십시오.

예레미야애가 3장 58절 전반절, **רַבְּתָּ אֲרֵנִי רִיבִי נִפְשִׁי**를 『개역』에서는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퍼셨고”로, 『개역개정』에서는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로, 『표준』에서는 “주님, 주께서 내 원한을 풀어 주시고”로, 『표준개정』에서는 “주님,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 주시고”로, 『공동』과 『공동개정』에서는 “주여, 주께서는 제 송사를 옳게 받아들이시어”로, 가톨릭 새 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저의 송사를 맡으시어”로 옮겼습니다.

이처럼 한글 공인번역본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의 주어인 단수 남성 이인칭을

21) BHS/BHQ의 장절 표기와 다른 『개역』성경의 장절 표기는 [ ] 안에 넣습니다.

‘주’나 ‘주님’이라는 실명사로 바꾸어 옮겼는데, 이는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호칭을 붙이려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윗사람을 직접 일컫는 경우에는 실명사를 쓰는 수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할 자리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말큰사전』에서는 항목 ‘당신’의 둘째 뜻으로 “합쇼할 자리(아주높임)에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로 풀이하고 그 보기로 “하느님이시여, 저희가 당신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하나이다.”라는 문장이 성경에 나온다고 소개합니다.<sup>22)</sup> 아마도 이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어법을 한글학회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와 ‘주님’은 히브리 낱말 <아도나이>를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므로 히브리어 문장의 단수 남성 이인칭 주어는 ‘당신’으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히브리어 문장에서 술어동사 רָבַח 다음에 오는 호격 אֲנִי를 한글 공인번역본에서는 한결같이 맨 먼저 번역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법으로는 이것이 자연스럽겠지만 칠십인역과 루터 번역 성경처럼 히브리어 문장의 어순을 최대한 반영하여 “당신께서, 주님, 제 사건을 맡으셨습니다.” 째므로 옮겨볼 만합니다.

58절 전반절 마지막 낱말인 אֲנִי는 시문에서 ‘나’를 에둘러 강하게 표현하는 말로 보고,<sup>23)</sup> 이 경우에는 바로 앞에 연계형 명사가 있으므로, ‘내 영혼의’로 옮기기 보다는 ‘저의’나 ‘제’로 옮기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리하여 58절 전체는 다음과 같이 옮길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주님, 제 사건을 맡으셨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내셨습니다.

59절 전반절 히브리어 본문은 어순이 58절 전반절과 비슷합니다. 맨 앞에 나오는 술어동사 רָבַח (“당신이 보셨습니다”)에 호격 אֲנִי(‘야훼님’)이 뒤따르고 동사 목적어 אֶמְצָא(‘나의 억울함’)이 맨 뒤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59절 전반절은 “당신께서, 야훼님, 제 억울함을 보셨습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22) 한글학회 엮음, 『우리말큰사전』(서울: 어문각, 1992), 962.

23) HAL, 672(항목 אֲנִי의 6번); F. Brown/S.R.Driver/Ch.A.Briggs (ed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reprinted 1977), 660(항목 אֲנִי의 4번). 둘째 사전은 아래에서 BDB로 줄여 부르기로 합니다.

[연습 13] 3장 59절 후반절의 שפֿתֿ שפֿתֿ을 신명기 16장 18절, 열왕기상 3장 28절, 예레미야 5장 28절, 에스겔 16장 38절, 23장 45절, 스가랴 7장 9절, 8장 16절에 나오는 שפֿתֿ שפֿתֿ과 견주어보면서 이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59절 후반절의 שפֿתֿ שפֿתֿ는 ‘판가름을 판가름하다’로 직역할 만합니다. 동사 שפֿתֿ는 구약성서에서 본디 두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깨뜨린 원인을 없애기 위해 제3자가 판가름함을 뜻합니다.<sup>24)</sup> 그런데 이 동사에서 나온 שפֿתֿ은, 뿌리가 되는 동사의 뜻을 그대로 지니면서 그저 법정 안팎의 온갖 다툼이나 다툼 거리를 가리킬 수 있는 פֿוֿרָא는 달리 글의 흐름에 따라 ‘판가름’, ‘판결’, ‘형벌’, ‘법률 사건’, ‘법률 분쟁’, ‘법에 입각한 요구’, ‘권리’, ‘올바름’, ‘습관’, ‘풍속’, ‘알맞음’ 따위의 여러 가지 뜻을 지닐 수 있습니다.<sup>25)</sup> 『개역』에서는 이 שפֿתֿ을 ‘판단’(대상 16:12)<sup>26)</sup>, ‘판단력’(시 72:1), ‘공도’(창 18:19), ‘공평’(신 32:4), ‘공직(公直)’(잠 12:5), ‘공변됨’(호 2:21[19]), ‘공법’(암 5:24), ‘공의’(창 18:25), ‘공(公)’(삼하 8:15), ‘의’(욥 27:2), ‘옳은 것’(욥 34:4), ‘정직’(욥 34:6), ‘심문’(사 53:8), ‘심문함’(겔 23:45), ‘심문권’(겔 23:24), ‘국문’(시 119:84), ‘국문함’(겔 16:38), ‘재판’(레 19:35), ‘심판’(신 32:41), ‘판결’(출 28:15), ‘판결법’(민 27:21), ‘판결함’(왕상 3:28), ‘권리’(신 21:17), ‘신원(伸冤)’(신 10:18), ‘죄’(겔 7:23), ‘형벌’(습 3:15), ‘작정하기’(잠 16:33), ‘일의 작정’(잠 29:26), ‘송사’(신 24:17), ‘사연’(민 27:5), ‘사정’(욥 13:18), ‘일’(왕상 8:45), ‘벌’(겔 5:8), ‘화’(렘 51:9), ‘규례’(레 5:10), ‘율례’(출 15:25), ‘법도’(레 18:4), ‘법’(레 24:22), ‘제도’(삼상 8:9), ‘직무’(왕상 5[4]:8[28]), ‘받을 음식(應食)’(신 18:3), ‘하던 것’(창 40:13), ‘식양(式樣)’(출 26:30), ‘방식’(수 6:15), ‘행하는 습관’(삼상 2:13), ‘모양’(왕하 1:7), ‘풍속’(왕하 17:33), ‘반열’(대상 6:17[32]), ‘정식(定式)’(대하 4:7), ‘정규(定規)’(대하 8:14), ‘적당한 방법’(사 28:26), ‘합리’(욥 35:2), ‘합당’(렘 26:11), ‘본래’(렘 30:18) 따위로 아주 여러 가지로 옮겨 놓았습니다.<sup>27)</sup>

24) G. Liedke, “שפֿתֿ špṯ richten”,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Band II (München: Chr. Kaiser Verlag /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6), 999-1009, 여기서는 1001.

25) HAL, 615-616; BDB, 1048-1049; G. Liedke, “שפֿתֿ špṯ richten”, 1004-1007; B. Johnson, “שפֿתֿ mišpāṯ”,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Band V (Stuttgart/Berlin/Köln/Mainz: Verlag W. Kohlhammer, 1986), 93-107을 서로 견주어 보십시오.

26) 각 번역어가 나오는 구절은 괄호 안에 하나씩만 적기로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조오지 위그렘저, 김만풍 역, 『원어성경연구대사전(구약)』(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3), 995-999쪽을 보십시오.

27) 이밖에도 이 명사가 일정한 전치사나 동사와 결합한 경우에는 ‘공판하다’(시 35:23), ‘신문하다’(왕하 25:6), ‘변론하다’(사 41:4), ‘뜻을 정하다’(습 3:8), ‘말을 바르게 하다’(사 32:17), ‘베



그리하여 **שָׁפַח** **שָׁפַח**도 글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예레미야 3장 59절 후반절을 『개역』에서는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로, 『개역개정』에서는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로, 표준새번역과 그 개정판에서는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로, 공동번역과 그 개정판에서는 “바른 판결을 내려 주셨습니다.”로, 가톨릭 새번역 『성경』에서는 “저의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로 옮긴 것이 이런 상황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שָׁפַח** **שָׁפַח**이 신명기 16장 18절에서는 재판에서 재판관이 백성 사이의 다툼에서 올바르게 판가름함을 뜻하고, 열왕기상 3장 28절에서는 솔로몬이 한 죽은 아이를 두고 다투는 두 여인의 사건에서 바르게 판결 내림을 가리키고, 예레미야 5장 28절에서는 유다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투는 일을 바르게 판가름하지 않음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에스겔 16장 38절에서는 야훼께서 간음한 여인들을 판결하시듯이 예루살렘을 판결하시겠다고 할 때 이 표현을 썼고, 23장 45절에서도 의인들이 간음한 여인들을 판결할 때나 피 흘린 여인들을 판결할 때처럼 야훼께서 하시겠다고 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스가랴 7장 9절에서 참된 판결을 하라는 말씀에서, 8장 16절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평화의 판결을 하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서 예레미야애가 3장 59절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 것은 예레미야 5장 28절입니다.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의 **שָׁפַח**’라 할 때(출 23:6; 시 140:3도 참고) 이는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을 두고 판가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하여 마땅히 그들에게 돌아갈 것 곧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sup>28)</sup> 따라서 거기서 예언자는 악인들이 재판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은 것을 꾸짖은 것입니다. 것처럼 예레미야 3장 59절 후반절에서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는 야훼께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리하여 3장 59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만합니다.

당신께서, 야훼님, 제 억울함을 보셨습니다.

제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푸시는 대로’(시 119:132), ‘너그라이’(렘 10:24), ‘마땅히 얻을 자’(겔 21:32[27])로 옮겨 놓기도 했습니다.

28) G. Liedke, “**שָׁפַח** *šp̄t* richten”, 1004-1005.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שָׁפַח**를 말하는 경우로 ‘고아와 홀어미의 **שָׁפַח**’(신 10:18), ‘나그네와 고아의 **שָׁפַח**’(신 24:17), ‘나그네와 고아와 홀어미의 **שָׁפַח**’(신 27:19), ‘내 백성의 고통받는 사람(יָגוּ)들의 **שָׁפַח**’(사 10:2), ‘고통받는 사람들의 **שָׁפַח**’(욘 36:6)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장 58-59절을 함께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당신께서, 주님, 제 사건을 맡으셨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내셨습니다.  
당신께서, 야훼님, 제 억울함을 보셨습니다.  
제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 2장 1절, 4장 1-2절, 3장 58-59절 여섯 줄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본 문제는 다음 열세 가지입니다.

1. 책의 첫 낱말을 따로 떼 내어 볼 것인가, 아니면 뒤이어 나오는 여섯 낱말과 한데 묶어 볼 것인가?
2. 히브리어 시문에서 한 줄을 앞 뒤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번역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3. 형용사 여성 단수 연계형과 명사 절대형으로 이루어진, 1장 1절 첫 줄 둘째 구(עַל רִבְּוֹתַי)를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할 것인가?
4. 1장 1절 첫 구의 술어동사 קָבַץ를 어떻게 이해하여 어떤 시제로 옮길 것인가?
5. 히브리 알파벳 시의 특성을 한글 번역에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6. 한 히브리 낱말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뜻을 지니면서 1장 1절 한 절 안에 나란히 나올 때 이를 번역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7. 1장 1절, 2장 1절, 4장 1절 첫머리의 אֵיכָבֶד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가?
8. 1장 1절에 들어 있는, 어순이 다른 여러 히브리어 문장의 차이를 한글 번역에서 살릴 수 있을까?
9. 여러 한글공인번역본의 1장 1절 번역의 특징은 무엇인가?
10. 2장 1절과 4장 1-2절 번역에서는 어떤 문제에 부딪치는가?
11. 3장 58절 전반절의 כִּי כָךְ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2. 히브리어 문장의 주어로 하나님께서 단수 남성 이인칭으로 나올 때 이를 한글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13. 3장 59절 후반절의 אֲשַׁפֵּן אֲשַׁפֵּן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여러 문제는 히브리어 문법(1, 3, 4, 7, 8)을 비롯하여 히브리어 구조나 히브리 어법이 우리말의 구조나 우리 어법과 다른 데서 빚어지는 문제(2, 5, 6, 8,

10, 12)일 뿐만 아니라 글의 흐름을 따른 본문 이해와 관련된 문제(1, 3, 4, 6, 11, 13)입니다. 특히 11과 13은 한 낱말이 아주 여러 가지 뜻을 지닐 때 특정 문맥에서 어떤 뜻을 지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표현이 나오는 여러 경우를 낱말이 살펴보는 번거로운 작업이 번역 과정에 요청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히브리 성서의 시문 번역에서 자주 부딪치는 문제들입니다. 이 밖에도 예레미야애가 번역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주요어>(Keywords)

성서 번역, 예레미야애가, 히브리 성서, 시문.

Bible Translation, the Book of Lamentations, Hebrew Bible, Poetry.

<참고문헌>(References)

- 김정우, “히브리 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 이론과 실제 - 시편 49편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2 (2003.2), 7-37.
- 김정우, “히브리 고시(古詩) 번역의 문제들 - ‘모세의 노래’(신 32:1-43)를 중심으로(제1부)-”, 『성경원문연구』 19 (2006.10), 7-33.
- 김정우,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제2부: 실례들-”, 『성경원문연구』 20 (2007.4), 7-29.
- 문익환,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성서 번역의 문제들-”, 그리스도와겨레문화연구원 편,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49-65.
-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 조지윤, “성서 번역자 양성 과정을 위한 제언 -스코포스 이론과 번역의 실재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2 (2003.2), 121-140.
- 쵸오지 위그람 저, 김만풍 역, 『원어성경어구대사전(구약)』,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3), 995-999.
- 주교회의의성서위원회 편찬,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한글학회 엮음, 『우리말큰사전』, 서울: 어문각, 1992.
- Berger, U., *Klagelieder*,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Freiburg/Basel/Wien: Herder, 2002.
- Brown, F., Driver, S. R. and Briggs, Ch. A.,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07, reprinted 1977.
- Die Bibel nach der Übersetzung Martin Luthers mit Apokryphen*, Bibeltext in der revidierten Fassung von 1984,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5.
- Die Schriftwerke verdeutscht von Martin Buber. Band 4. Das Buch der Preisungen*, Heidelberg: Verlag Lambert Schneider, 1980=<sup>5</sup>1962.
- Johnson, B., “מִשְׁפָּטֵי mišpāt.”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Band V. Stuttgart/Berlin/Köln/Mainz: Verlag W. Kohlhammer, 1986, 93-107.
- Koehler, L. and Baumgartner, W., (ed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2 Bände, Leiden/ New York/Köln: E. J. Brill, 1995.
- Liedke, G. “שָׁפֵט špṭ richten”,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Band II, München: Chr. Kaiser Verlag /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6, 999-1009.
- Owens, P. J., *Suffering from Aleph to Tau: The Imagery of Suffering in the Book*

*of Lamentations*, Ann Arbor: UMI, 1998. (Ph.D.):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7.

Robinson, T. H., (ed.),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3. Megilloth*,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sup>4</sup>1990[<sup>1</sup>1975], 1354-1367.

Schäfer, R. (ed.), *Biblia Hebraica Quinta 18. Megilloth*.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4, 54-72, 17\*-20\*, 30\*-34\*, 43\*-46\*, 113-136\*.

*Tanakh, The Holy Scripture. New Jewish Publication Society Translation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Hebrew Text*, Philadelphia/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5.

*Wilhelm Gesenius' Hebräische Grammatik völlig umgearbeitet von E.Kautzsch*. Hildesheim/Zürich/New York: Georg Olms Verlag, 1983(=Leipzig, <sup>28</sup>1909).

E. Kautzsch 증편, 신윤수 옮김,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3.

<Abstract>

## Exercises in Translating *Lamentations*

Prof. Donghyun Park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In the course of the last three *Korean Translation Workshops* (2003, 2005, 2007) many useful theories and perspectives of the Bible translation were presented by the scholars at home and abroad. What the participators seemed to miss are practical exercises in translating the Hebrew, Aramaic, or Greek texts of the Bible. In order to meet this need especially in the poetic texts of the Hebrew Bible, six verses are chosen from *Lamentations*, namely 1:1; 2:1; 4:1-2; 3:58-59. Each participator in the fourth *Workshop* is kindly requested to prepare tentatively her/his own Korean translation of these verses as presented in *BHS/BHQ* and to report beforehand in an internet community what kind of difficulties she/he has found in translating. Participators can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ollowing questions which I propose them as a guide: 1. Is אֵיכָה, the first word of *Lamentations* to read independently of the first *colon*, or as an element of the *cola*? 2. How can the *cola* structure of the Hebrew poetry in Lam. 1:1 be retained in the Korean translation? 3. How is רָבָהּ עִם in Lam. 1:1bβ to understand and to translate? 4. In what tense is the finite verb יִשָּׁבֵהּ in Lam. 1:1a to translate? 5. In what degree is it possible to reflect the form of the so called alphabetical Hebrew poem in the translation? 6. Can we show in the translation the relatedness of the two *cola* (Lam. 1:1aα and 1:1bβ) in which the same word (רָב) is used respectively in different sense? 7. How far does the influence of אֵיכָה, the first word of verses Lam. 1:1; 2:1; 4:1 reach? 8. How can we translate effectively the differences of the word order between Hebrew sentences in Lam. 1:1? 9. What ar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different translations of Lam. 1:1 in the officially recognized Korean Versions? 10. What are the problems to solve in translating of Lam. 2:1; 4:1-2? 11. How can we find out the appropriate meaning of רָב רָב in Lam. 3:58a? 12. What's the problem in translating into Korea, when in Lam. 3:58-59 God as the second person singular is the subject of a Hebrew sentence? 13. How can we find out the appropriate meaning of מִשְׁפָּט מִשְׁפָּט in Lam. 3:58a?

These questions can be answered partly on the basis of Biblical Hebrew grammar (1, 3, 4, 7, 8), are partly related to the different structures and usage between Hebrew and Korean language (2, 5, 6, 8, 10, 12), and have partly something to do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in the light of the respective context (1, 3, 4, 6, 11, 13).